

인도네시아 관광시장 동향[8월]

'26.8.31(월) /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

□ 시장 동향

○ (방한) 2026년 6월 인니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현황

- '26.6월 인도네시아 방문 외국인 수는 총 1,386,580명으로, 전년 동기(1,417,100명) 대비 2% 감소, 전월(1,382,090명) 대비 0.3% 증가하였음. 주요 방문객 국적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중국, 동티모르, 인도, 등임
- '26.6월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766,780명으로, 전년 동기(727,560명) 대비 5% 증가, 전월(550,380명) 대비 39% 증가하였음. 주요 증가 원인은 2025년 6월 대비 전반적인 상황이 안정된 데 기인함. '25년 6월에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란 간 갈등이 처음 발생하면서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선택한 바 있음. 또한 '26년 6월 국내외선 항공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학 기간 항공권 할인 인센티브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주요 방문국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일본, 동티모르, 한국, 베트남, 호주 순이며, 한국은 전월에 이어 8위를 유지함

<2025-2026 인니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단위 : 명)>

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5	1,156,012	1,022,894	984,769	1,164,539	1,306,000	1,417,096	1,481,346	1,505,220	1,394,910	1,348,993	1,199,007	1,405,860	15,386,646
2026	1,188,420	1,159,690	1,088,166	1,248,651	1,382,087	1,386,580	-	-	-	-	-	-	7,453,600
아웃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5	990,110	759,070	582,080	926,600	585,800	727,560	869,930	684,930	695,910	725,420	794,730	823,770	9,165,910
2026	1,006,400	701,070	793,160	643,660	550,380	766,780	-	-	-	-	-	-	4,461,450

*[링크](#) (Badan Pusat Statistik, 2026), [링크](#) (Badan Pusat Statistik, 8.3)

○ (방한) 가을 성수기 및 여행박람회 개최에 따른 4분기 방한 수요 증가 전망

- 2026년 4분기에는 가을철 단풍과 선선한 날씨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인의 방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8월에는 HSBC Asia Travel Fair 2026, Astindo Travel Fair 2026, BNI WonderX 2026, Garuda Travel Fair 2026 등 주요 여행박람회가 잇따라 개최되어 해외여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음. 해당 박람회에서는 항공권, 여행상품 및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조기 여행 예약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한국의 가을철 관광 콘텐츠와 여행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말 방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2026년 4분기 인도네시아인의 방한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긍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 Taiwan Travel Fair(8.14~16), Saudi Travel Fair 2026(8.27~30) 또한 개최

*[링크](#) (Readers, 8.14)

○ (항공) 2026년 신규 국제선 운항 동향

- 트랜스누사항공: 수마트라 람퐁-쿠알라룸푸르 주 7편 운항 (8.24~)
- 반둥 후세인 사스트라네가라 공항: 26년 10월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목표. 트랜스누사, 스쿠트항공, 에어아시아, 말린도 에어 등 항공사가 26년 10월부터 반둥-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조호르바루 등 국제선 운항 계획함

*[링크](#) (Jakarta Kita, 8.30), [링크](#) (Info Wisata Bandung, 8.18)

□ 정책 동향

○ (여권 정책) 인니 정부, 2027년 단일 국가여권 체계 도입 계획

- 인니 정부는 2027년부터 일반여권과 전자여권 구분 없이 단일 국가여권 체계 도입 계획. 또한 평생 유지되는 여권번호 제도를 도입해 개인별 전체 출입국 이력을 통합관리하고, 비자 발급 등 출입국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

*[링크](#) (Tejawisata, 8.23)

○ (관광인프라) 인니 정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관광 인프라 지속 강화

- 인도네시아는 자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카르노-하타 공항 터미널 재정비, '26.10월 반둥 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 신수도(누산타라) 공항의 상업공항 전환, 수마트라-칼리만탄 횡단철도,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발리 북부 불레렝 신 공항 건설, 발리 기존 응우라라이 공항에서 짱구지역까지 연결하는 자율주행 전기트램 개발 등 교통 및 관광 인프라 지속 강화. 이는 외래관광객 이동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뿐 아니라, 한국 항공사의 인도네시아 노선 다변화, 국내 모빌리티·인프라 기업의 현지 협력 기업 기회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링크](#) (Good News From Indonesia, 8.4), [링크](#) (Good News From Indonesia, 8.5), [링크](#) (Good News From Indonesia, 8.8), [링크](#) (Good News From Indonesia, 8.18), [링크](#) (Info Wisata Bandung, 8.18), [링크](#) (Good News From Indonesia, 8.22)

□ 시사점

- 8월은 인니 및 주요 경쟁국 관광업계가 4분기 및 연말·연초 해외여행 수요 선점을 위한 마케팅을 본격화하는 시기로,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경쟁국은 8월 중 자체 여행박람회를 개최하며 인니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섬
- 이에 따라 2026년 4분기 휴가철을 대비해 인니 시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무슬림 친화형 상품과 함께 인니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가을·겨울 테마 적극 개발·홍보할 필요가 있음